



입에 담뱃재 털고 감금·폭행까지...

장애인에 가학적 범행 일삼은 일당 줄줄이 징역형 수개월간 집단 폭행...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제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을 수개월간 집단 폭행한 일당의 가학적 범행 수법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와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19)씨와 박모(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한 천모(27)씨 등 7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4일까지 제주시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10~20대의 지적장애인 7명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인근에서 만난 지적장애인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판결문에 나타난 범행 수법은 가학적이었다. 가해자들은 피해 장애인들에게 자신들 패거리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며 서로 싸움을 붙이거나 하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장애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했다. 또 피해자 입에 담뱃재를 털어넣고 라이터로 머리 끌

부위를 불로 태우는가 하면 제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쌌으라"고 협박하고 신체 주요부위를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10대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시청 인근에서 장애인에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이들을 붙잡으며 세상에 알려졌다.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자들처럼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이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시기에 특수학교를 다니며 서로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멸종위기 바다거북 18마리 방류. 지난 1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해양수산부 주최로 진행된 바다거북이 방류 행사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18마리를 바다로 되돌려보내고 있다.

벌초 기간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9월 사고 집중... "안전장구 착용을"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벌초 행렬이 이어지자 제주 소방당국이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는 34건이다. 이중 벌초가 집중되는 9월에 발생한 사고가 13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월별 발생현황은 3월 1건, 4월 1건, 5월 3건, 6월 10건, 8월 4건, 9월 13건, 10월 2건 등이다.

연령대별 예초기 부상 인원은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9명), 50대(5명) 등의 순이다.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칼날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밭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

호안경, 안면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벌초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벌초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벌초시기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동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즉각 출동체제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추석 전 건설공사 대금 체불 특별점검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도 "적발시 영영정지 등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건설현장 공사 대금 등 체불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9월 11~25일)을 설정해 도내 민·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체불 및 불공정 관행 등 민원신고에 대해 접수 즉시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석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 및 행정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공공사(5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납품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별 자체 점검에도 나선다. 더불어 건설과는 각종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대비 건설공사 시공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하도급 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건

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등이다.

제주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 사항에 대해 체불 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영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공실태 특별점검 및 발주부서별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추석연휴 양지공원 추모객 사전예약 하세요"

하루 300가족 입장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9월 30일~10월 4일)동안 양지공원 봉안당 내 제례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추모객에 대한 총량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추석기간 추모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방역대책을 보면 1일 추모객 총량 사전예약제 운영,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및 발열체크 강화, 봉안당 내 제례실·휴게실 폐쇄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이다.

추모객 총량 사전예약제는 양지공원 내 3개 봉안당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봉안당별로 오전 8~11시(1회차), 낮 12시~오후 2시(2회차), 오후 3~5시(3회차) 등 3부제로 운영된다.

회차당 1가족당 5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총 100가족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등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전 예약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지공원 접수실(064-710-6606-6628)에 접수하면 된다.

추모객에 대한 발열체크·출입명부 작성·봉안위치 안내 등에 따른 근무인원을 확대하고, 봉안당 사용자에 대한 문자발송 등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우도 인근 해상서 스노클링하던 관광객 숨져

제주 우도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우도 하우목 동향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A씨(47·부산)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함께 물놀이를 즐기던 일행이 육상으로 나온 후에도 A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

해졌다.

서귀포해경은 헬기·경비함정·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수색에 나서 오후 2시 4분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오후 2시 23분쯤 119 구급대에 인계된 뒤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서귀포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 생태문화도시 BI 디자인 시민 공모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서귀포의 생태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10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이 가진 노지문화를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문화도시로 서귀포를 브랜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귀포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B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거주 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자격으로 1개 디자인을 신청하면 된다. 참가 연령 제한은 없으며, 공모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저작권 양도 확인서, 서약서, 이미지 파일을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메일(seogwipo10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辛) 一(一) 祚(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일 감귤!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예감, 탐나는봉

가정원예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신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 라 조 생 1,3년생
감 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 전 온 주 1년생
천 해 향 4,5년생
황 금 향 4,5년생
유 라 실 생 3,4년생
탱 자 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랑,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번이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